

조선시대 사상의학과 에도 막부 시대 난학을 비교하며 알아보는 한의학의 발전과 의의

1519 정미소

목차

1. 주제 선정 계기
2. 조선시대 사상의학
2. 에도 막부 시대 일본의 난학
3. 느낀 점

주제 선정 계기

현대사회에 ‘의학’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동양의학보다는 서양의학을 떠올리게 된다. 이에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반으로 인체를 소우주로 해석하는 동양의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해당 주제를 선정하였다.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각각의 환경, 지리적 특색에 맞춰 발전한 우리나라의 한의학, 일본의 난학을 비교해봄으로서 동양의학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함.

조선시대 사상의학

- 한국 고유의 치료술 등이 조선 초기 『향약집성방』등에서 일차 정리되고 『의방유취』의 간행으로 한국 전통의학의 틀이 갖추어지게 됨
 - 이후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으로 이어져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학전통으로 이어지게 됨
 - 한의학의 중심은 인간의 체질적 특성과 자연과의 관련성으로
- ### 인간중심의학
- 성리학적 전통과 백성들에 대한 위민사상이 깔려있으며, 내부적 원인을 중시하는 경험방을 중시

조선시대 사상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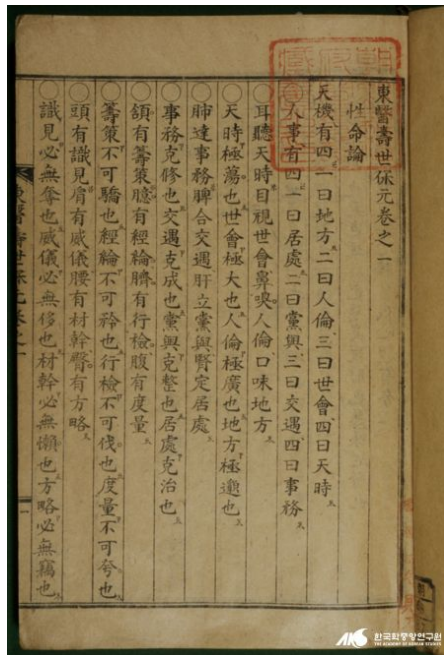
사상의학이란? 사람들을 체질적 특성에 따라
태양.태음.소양.소음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병을 치료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체질의학 사상의학의 발전 과정

-이제마가 1894년 <동의수세보원>에서
처음으로 창안, 발표

-본래 <주역>에 나온 말로서, 태극은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는다고 한 데서 유래

-사상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분류되어
이를 체질에 결부시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



동의수세보원

사상의학의 특징

사상의학에는 몇 가지의 법칙이 존재함

1. 유형불변의 법칙으로 태음인은 절대 태양인으로 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유형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듯이 타고난 선천적 유형은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2. 예외불허의 법칙으로 모든 인간의 유형은 반드시 사상 외의 다른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사상인의 중간형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8상형 같은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3. 약물혼용불허의 법칙으로 사상인은 특유의 체질에 따라 온열한량의 약물성분이 결정되었으므로 혼용할 수 없다는 법칙이다
- > 사상철학에 근거한 사상인론은 연역적인 가설이기는 하나 인간의 특이체질설의 하나로 그의 독창성은 의학계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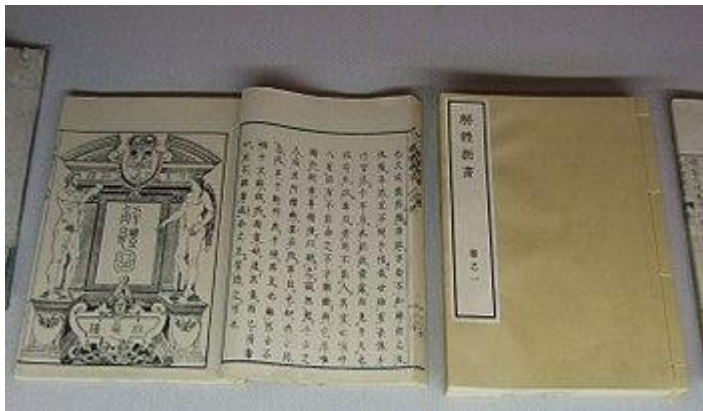
에도막부 시대 일본의 난학

- 에도 막부 시대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유럽의 학문, 기술, 문화 등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
- 난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의학 분야에서 마련됨
- 스기타 겐파쿠, 마에노 료타쿠 등이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념비적인 <해체신서>를 냄

일본의 난학

<해체신서>

-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양 학술 서적
-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한 일본인 의사 겐바쿠가 이 새로운 학문의 이름을 ‘난학’이라고 부름
- 이후 난학이 전국적으로 확산



당대 난학 발전의 역사적 배경

- 도쿠가와 막부 지배한 약 **250**여대년간의 에도 시대는 대도시에서 경제와 문화 학문이 꽃피며 급격한 인구 증가
- 과거 제도 없었던 에도 막부 시대에 피지배민들이 입신양명하는 길은 의사 되는것
- 의학이 점차 민중화 되는 과정에서 난학을 배운 의사들 중 이름을 날리는 이들 나타남
- 서양문물을 접한 일본이 근대화를 거치며 진보하게 됨

느낀점

현재의 의학이 서양의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오랜 기간 우리 문화에 녹아 들면서 고유한 의학적 발전을 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됨. 또한, 의학이 단순히 과학, 공학적 관점이 아닌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느끼게 됨. 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번을 기회로, 한국의 의학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쌓고 미래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여 도서 ‘한국의 의학사(여인석 외 4인)’을 읽을 계획을 세움.